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담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인가하면 어떤사람에게는 매우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담배냄새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이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이 내뿜는 연기는 막힌 장소에서는 숨을 쉬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따라서 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이 안좋을 때는 더욱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힘들다. 임산부에게는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만큼 임산부가 되는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담배는 한번 피우게 되면 익숙해져서 끊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나의 상품으로써 꽤 잘팔리는 물건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신문같은 곳에 광고가 자주 실린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흥미 거리인것이다.

광고로 인해 한사람이라도 흡연을 하게 되는것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TV드라마나 CF광고에 잘생긴 남자배우가 담배를 피워물고 고독하게 서있는 장면은 꽤 환상적으로 보인다.

그런 시각적 효과로 인해 좀더 남자답고 멋있게 보이려고 흡연을 하는 경우도 더러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담배의 광고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결코 멋을 위해서 피우는 물건이 아니며 혹 그렇다면 그만큼 자신의 몸도 좋지 않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